

언론 사람

2018
vol.215

05

04

인터뷰

황연대 박사



09

위원단상

공인 관련 조정의 어려움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





글 · 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스페인의 이국적인 이슬람 궁전, 알함브라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온 감미로운 기타 연주에 취한 적이 있었다. 기타 거장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연주로 기억된다. 제목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 남쪽 그라나다에 위치한 이슬람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이슬람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다.

그라나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궁전은 스페인 마지막 이슬람 왕조 때인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 지어졌다.

물이 귀한 땅에서 살아온 이슬람교도들의 오아시스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을까. 성채 안 곳곳에는 연못과 분수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우상숭배를 금지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내부 장식을 식물과 기하학적으로 화려하고 독특하게 디자인했다.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오늘도 알함브라 궁전은 아련한 역사의 추억을 간직하며 서 있다. 

CONTENTS

2018 May
Vol.215



언론+



사람+

- 02 Close-Up
스페인의 이국적인
이슬람 궁전, 알함브라
- 04 인터뷰
황연대 박사
-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범죄, 행사에 집중된
장애인 보도,
'다름별 사람' 으로 봐야
- 07 언론법 이모저모
포털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로코'는 왜 힘을 잃었을까?
- 09 위원단상
공인 관련 조정의 어려움

- 10 세상읽기
이 시대의 '오빠'들에게
- 11 푸드텔링
북한 별미
-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
- 15 따뜻한 아이디어
Superformula to
Fight Cancer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5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구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자신감의 힘

세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는 올림픽.
올림픽에서 그 결과는 메달로 꽃핀다.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에는 또 다른 특별한 메달이 있다.
경기 성적과 상관없이 장애를 극복한 강한 의지와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하는 '황연대 성취상'.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황연대 성취상'을 제정한
황연대 박사를 만나보았다.

Q | 1988년 서울 올림픽 후 3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시상
을 하셨습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역대 수상자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이 상을 수상한 선수들을 보면 저의 분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을 수여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번 평창 패러
림픽에서도 시상을 하고 감사패도 받게 되어 기분이 무척 좋았습
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패럴림픽에서 진행된 '황연대 성취상' 시상
식을 보면서 장애인인 제가 다른 장애인에게 상을 주고 진심으로 격려
하는 모습에 특별한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Q | 박사님께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격변기
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
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 저는 1938년에 태어나 3살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
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요. 하지만 부친께서는 제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고,
집에 손님이 오시면 만팔인 저를 가장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청소,
빨래 등 집안일에서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도 제 곁에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
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형성된 강한 정신력과 저를 응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총장을 맡기도 하셨는
데요.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A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스포츠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강인
한 정신력을 갖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애로 인해 위축되
었던 사람이 공을 던져 점수를 획득하고, 끝인 지점에 도착하여 얻는
성취감은 장애인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장애인의 재활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큼니다.



[출처] SBS 평창 2018 패럴림픽 폐회식 <황연대 성취상> 시상식 장면

Q | 남편 분을 만난 일화가 매우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A | 남편은 중학교 3학년 때 통학버스에서 저를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제가 넘어졌는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남편은 3년 동안 제가 모르게 버스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남편은 제게 고백을 하였고, 미래에 상이군인을 위한 재활시설을 만들고 싶다면서 제가 의사가 되어 자신과 함께 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남편은 장애가 없었지만 장애인보다 더 장애인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결혼 후 제가 인권운동을 할 때에도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Q | 오늘날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발전은 무엇이고 또 여전히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 가장 달라진 점은 장애인이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직업을 가질 때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면 낙심하여 사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컸지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해 선입견이 여전히 큼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장애로 인한 한계보다는 장애인이라서 가지는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인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은데도 여전히 언론 보도는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보도는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의 성취를 보도할 때에도 인간 본연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보다 그가 장애가 있음을 강조하는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 대한장애인체육회 고문
-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집행위원
- 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 전 세브란스병원 소아재활원 의사

Q |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면서 의도와 달리 잘못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A | 장애인 체육시설인 정립회관의 초대 관장으로 재임하던 중 회관의 운영과 관련한 일방적인 의혹 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후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사에서도 추후보도를 내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Q | 박사님께서 몸소 장애를 극복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럼에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A | 그동안 저는 장애인의 인권과 재활을 위해 제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이 깊고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을 매우 존경합니다. 제게 기회가 허락되는 한 앞으로도 저 자신을 위해 꾸준히 배우고 싶습니다. 🍊

범죄, 행사에 집중된 장애인 보도, ‘다름별 사람’으로 봐야

김양순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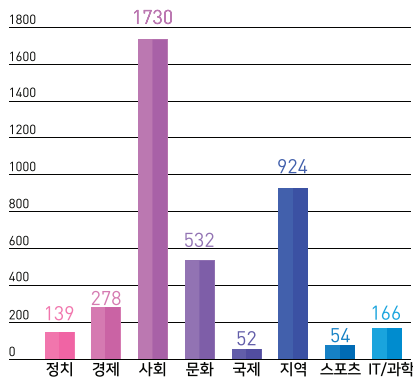


“엄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초등학교 3학년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여섯 살 아들이 냉큼 나섰다. “나 알아! 장애인의 날이야!” 그리고는 곧바로 둘이 동시에 재잘재잘 장애인의 날을 설명한다. 눈이 안보이거나, 팔을 쓸 수 없거나, 다리를 쓸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것, 장애인들이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 또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라는 점을 또박또박 설명하는 두 아이들을 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해 언론은 얼마나 보도를 했을까?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 K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 가운데 사진으로 이뤄진 포토 기사를 제외하고 지난 한달 간(3.21~4.22) ‘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는 2,740건에 불과했다. 네이버에 송고되는 하루 기사가 2만 건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한 달 실적치고는 참으로 송구한 데이터다.

아쉬운 마음에 기간을 늘려 2018년 1월부터 3개월간의 데이터를 수집해보았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패럴림픽이 개최되었던 만큼 장애인에 대한 보도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보도 건수는 6,170건. 이 가운데 포토 기사를 제외하면 5,826건으로 월 평균 기사 건수는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보다 적었다.



〈장애인 관련 주제별 보도 분석〉

기사량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사의 내용이니, 주제별로 기사를 구분해 보았다. 주제별 분류를 보면 사회 분야 보도가 1,730건, 정치 분야 139건, 경제 분야 278건, 지역 분야 924건으로 사회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

았다. 정치와 지역 분야에서 올라온 기사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000 예비 후보가 00행사에 참석했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올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기사에 활용된 단어들을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을 해봤다.

협약식 인식개선 기자회견 예비후보 사회참여 대표이사 봉사활동 임산부 자원봉사자 업무협약 더불어 대기업 이사장 지역사회 기념식 재향의욕 이날 행사 가족들 직업재활 기념행사 보건복지부 일자리

〈기사에 활용된 단어 텍스트 분석〉

워드클라우드에서 표출된 단어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예비후보”, “기념식”, “기념행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고, “직업재활”, “일자리”, “인식개선”도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참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답은 장애인의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등장했던 프로그램 <대한민국 1교시>가 갖고 있었다.

2005년부터 KBS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기획해 방송했다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와 출연자가 나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나 이거 수업시간에 봤어. 다름별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친구들이야.”

딸이 와서 아는 척을 한다. 다름별에 사는 사람들을 언론에서는 범죄나 행사 속의 인물로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88%가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다. 나 또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KBS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기획
〈다름별을 구하라〉



포털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김주연 | 변호사

짐작건대 바람잡이의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이다. 가령, 조선에서 양녕의 폐위와 충녕의 세자 즉위가 결정되고서, 어느 조정 대신이 은밀히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을지도 모른다. “장이 서는 날 주막에 가서 ‘양녕은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충녕(세종)은 어질고 현명하다’라고 떠들 어라”라고 말이다. 농민들은 주막에서 본 말 많은 사내가 바람잡이인 줄도 모른 채,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시간이 흐른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바람잡이는 있었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선거가 치러질 때면 부모님들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연설을 듣고 오는 하셨다. 그곳에는 어린 내가 느끼기에도 기이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들도 바람잡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인터넷이 생기고,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주막과 운동장이 생긴 셈이다. 젊은 사람들일 수록 지면 신문보다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는 일상이 익숙해졌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댓글을 작성하고, 맘에 드는 댓글을 보면 공감 표시를 눌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댓글은 불특정 군중의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사보다도 댓글을 더 흥미롭게 보는 편이었다. 그런데 근 몇 년 사이에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 맞는 듯한 경험을 했다. 국정원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는 드루킹이라는 자가

몇백 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 성숙한 토론과 참여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전방위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된 바람잡이의 역사가 어느 날 없어질 리는 만무했다. 여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가장 탐스러운 먹잇감이 아니겠는가.

드루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하게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불법한 목적으로 대여해서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지정된 시간에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데, 올해 2월에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다만 여론 형성이 인간의 정치적 욕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개인의 처벌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6년에 “페이스북은 미디어가 아니고 플랫폼일 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우리 플랫폼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선거 방해로 홍역을 치른 후, 얼마 전 미국 국회 청문회

에서 페이스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 포털은 지금은 피해자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페이스북 사태를 볼 때 뒷짐질 일만은 아니다. 사실 포털에 명예훼손성 댓글이 달렸을 때, 처음에는 명예훼손성 댓글을 단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문제 되었으나, 이후 포털에 대해서도 댓글 게시판을 관리할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댓글 조작도 포털이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히 여론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개인에게만 포커싱을 맞춰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는 정치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공간이 맞아떨어진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포털 화면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방식이 여론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포털은 링크만 담당하고 해당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각 언론사들은 나름의 정치 성향이 있고 독자들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중립적 위치를 표방하는 포털에서 보다는 여론 조작 동기가 훨씬 약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기획에 댓글 실명제를 하자고 하고, 과격한 사람들은 댓글 창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한다. 무엇이 정답일까. 조금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과연 그때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로코’는 왜 힘을 잃었을까?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1990년~2000년대에 로맨틱코미디로 묶이는 일군의 드라마 속엔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이사님 등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학교육이 일반화된 70년대 초,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여성의 입터는 다양하게 부각되었고 그들이 선망하는 직종이 드라마의 소재와 배경이 되었습니다. 입터에서 능력과 사랑을 모두 성취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라마에 투영돼 실장님과 본부장님은 로맨틱코미디의 대표적인 남자주인공으로 부상했습니다.

재벌 2세도 실장님 못지않게 흔했죠. 잠깐 연인 간에 '만약'을 묻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연애 초기의 젊은 연인들은 '나를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할 수 있죠. 1990년~2000년대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돈과 가족'이 많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해진 이 시대의 연인들에겐 부모의 반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는 상황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돈과 가족이 결합한 고난, 즉 상속이 갈등의 큰 축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재벌 2세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특징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이 본격화 되고 모두가 중산층 이

상을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이때 불륜과 불치병을 소재로 삼는 멜로드라마가 유행하던 것도 당시의 시대상과 드라마가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중산층의 꿈이 깨어지고, 학자금음 갚느라 몸과 마음이 고달프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취업이 되어서도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을 봅시다. 무언가 근사한 것을 선망하기엔 현실이 너무 혹독한 세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과 돈의 지원이 끊어져 빈털터리인 상태로 나에게 온다는 '만약'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은 현실. 현재가 고달픈데 병까지 짊어지는 사랑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피로해집니다.

남자주인공의 당연한 조건이었던 능력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으며, 여자주인공도 사랑을 위해 더 이상 마냥 착하고 순수한 '캔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선망과 상상을 구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남녀의 계급 차이를 극복하는 로맨스가 힘을 잃자, 가상의 세계 속 '판타지'가 드라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별에서 오거나 몸에 칼이 돋거나, 남자주인공이 도깨비나 저승사자가 되거나, 혹은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로 돌아가거나.

앞서 선망과 조건을 이야기한 까닭은 드라마 속의 연애가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조건, 특별한 능력, 트라우마 등 남녀 주인공에게 부여된 조건들은 주인공들이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거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거래의 결과는 사랑의 성취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유대, 치유와 조력 등을 얻기도 하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살피며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로맨틱코미디 드라마의 엔딩이 결혼이 아닌 열린 결말을 택하는 이유도 과거에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았던 사랑의 영원성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 로맨스가 현실을 기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녀 사이의 거래가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을 대중의 소망으로 재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일상이 혹독해지고 상대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현재의 조건 속에서 로맨틱코미디는 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연애 하나 뿐인 것도 아니죠. 팍팍한 현실에서 동력을 잃은 로맨틱코미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요즈음입니다. 🍷

공인 관련 조정의 어려움

이재진 |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신청인과 언론이 합의하도록 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조정심리에 참석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매우 보람된 일을 한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재부의 진정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조정 중에는 신청인이 공직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은 과거 공복(公僕)으로 불리던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인이나 일부 사회적 유명인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인은 미국만큼 일관된 적용 원칙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정의내리기를 꺼리거나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대개의 신청인들과는 다르게 공직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을 법원 제소를 위한 참고 단계 정도로 판단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직 생활을 위협하는 기사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액수를 높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는 조정은 거의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공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론보도의 경우도 피신청인 측에서 쉽게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인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보도와 언론인의 인식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공인과 관련해 얼마나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으며, 공인에 대한 언론과 법원의 인식도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 언론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는 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1999년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이해하는 공인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공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았지만, 〈언론과 공인〉에 나타난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공인을 정의하고 이를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공인과 일반인을 구분하거나 신청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언론이 공인으로 인식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은 공인인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정정보도와 인양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항변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구분이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론보도가 마치 언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수궁이 됩니다.

심리 과정에서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 경향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고려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 간의 긴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다양한 고려,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공적 인물/공익사안,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 원칙(언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회 조정 심리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명확히 공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물론 누가 공인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와 재산신고를 할 정도의 공무원 신분의 인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문은 최대한 넣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언론이 공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 자유가 가장 발달하고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도록 한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자신들의 판결이 공인에 대해 함부로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공인인 경우에는 언론 자유와의 조화 측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한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애쓰시는 전국의 모든 중재위원들께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진 (2018).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 시대의 '오빠'들에게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이제부터 세상의 남자들을

모두 오빠라 부르기로 했다

(중략)

오빠! 이 자지러질 듯 상큼하고 든든한 이름을

(중략)

오빠라는 말로 한방 먹이면

어느 남자인들 가벼이 무너지지 않으리

(중략)

오빠로 불려지고 싶어 안달이던

그 마음을

어찌 나물 캐듯 캐내어주지 않으랴

오빠! 이렇게 불려주고 나면

세상엔 모든 짐승이 사라지고

혈떡임이 사라지고

오허려 두둑한 지갑을 송두리째 들고 와

비단구두 사주고 싶어 가슴 설레는

오빠들이 사방에 있음을

나 이제 웅케도 알아버렸다.

(문정희 시 '오빠' 일부)

자지러질 듯 상큼하고 든든한 이름, 오빠! 오빠라고 불러주면 비단 구두라도 사주고 쫓아올 남자. 도둑놈 아니고 진국이니 제발 오빠하고 사귀자(노라조 노래 '오빠 잘 할 수 있어')고 졸라대는 남자. 이 시대 남자들은 왜 그리 오빠라고 불리고 싶어 안달하고 환장할까. 집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다가 밖에서는 오빠로 돌변하는 남자들. 그 '순진한' 용감함이 불러온 허망한 결과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 '오빠'라는 호칭을 생각해 본다.

오빠, 이 단어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 안에는 대체로 '사적 관계'라는 암묵적 뉘앙스를 품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미혹시키는 헛갈리는 단어다. 평소 '선배'라고 부르던 여자가 갑자기 "오빠 술 한 잔 사줄래요?"라고 한다면? 당신은 잠시 갈등에 빠질

것이다.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한 탤런트 교수는 제자에게 "야, 교수님이 뭐냐? 그냥 다정하게 오빠라고 불러"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레벨이지만 교회오빠와 교회누나의 어감은 다르지 않은가. "누나"는 결코 썸 타는 사이가 될 수 없다.

애인이냐 남편도 자주 오빠로 불린다. 이때 오빠라는 호칭은 남녀 관계가 환기하는 내밀한 성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희석해준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고 의지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담겨 있다. 하지만 관계의 평등성은 기울어진 것이다. "오빠만 믿어. 오빠 말고는 다 도둑놈이니 우리 사귀자"는 말은 기실 '착한 오빠' 코스프레 혐의가 짙다. 수컷의 욕망을 들킨하고 자상한 얼굴을 한 오빠 가면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빠도 '젊은 오빠'라야 말이 된다. 늙으면 오빠도 못 된다. 나이 든 남편은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문정희의 시 '남편')일 뿐이다. 당신이 계속 오빠로 불리고 싶다면, 오빠 흉내를 내고 싶다면, 당신은 한 '인간'으로 철들기 어렵다. 그런 오빠는 직장에선 '마부장'(드라마 '미생')으로, 사회에선 '개저씨'로 몰락할 소지가 크다. 다시 문정희 시다. 시인은 이렇게 한탄한다.

요새는 왜 사나이를 만나기가 힘들지

(중략)

눈에 띄까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짐승들뿐

눈부신 야생마는 만나기가 어렵지

(중략)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때 묻고 약아빠진 즐거움들은 많은데

불꽃을 찾아 온 사막을 헤매며

검은 눈썹을 태우는

진짜 멋지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 위기네

(‘다시 남자를 위하여’ 중에서)



북한 별미

이용재 | 음식평론가



정상회담 및 남북 예술단의 평양 공연 등으로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음식이라면 역시 평양냉면이다. 그런

데 평양냉면의 정통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남한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과연 진짜인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심지어 '당시 이북에서는 평양으로 국물을 냈는데 남한에서는 그럴 수 없으므로 제 맛이 안 난다'라는 주장마저 있지만 의심스럽다. 과연 그렇게 음식의 문을 좁힐 필요가 있을까?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면 요리가 존재할 수 있다. 메밀이 일정 비율 들어간 면이나 맑은 국물 등의 공통점을 나누는 가운데 문화, 경제, 정치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화할 수 있고, 그 모두가 평양냉면의 울타리 안에 발을 들일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으로 건너간 평양냉면에는 수박 같은 과일이 고명으로 올라간다. 냉면에 수박이라니 이상할 것 같지만 단맛과 시원함, 아삭거림을 생각해보면 남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썬 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진짜 평양냉면은 식초나 겨자 등을 국물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지만, 남한 공연단이 평양에서 냉면을 맛볼 때 접객원이 면에 직접 식초를 쳐 먹으려고 가르쳐 주는 장면을 모두가 보았으니 그 또한 다소 억지스럽다. 한편 함흥에는 냉면이 없고 농마(녹말)국수가 있다고 한다.

평양냉면 말고도 남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명태 혹은 가자미 식해가 있다. 남한에서는 엿기름으로 담그는 단 음료와 구분하기 위해 '식해'가 표준어이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식혜'라고 불린다. 남한에는 6.25전쟁 당시 월남한 실향민들에 의해 전파되면서 좁쌀밥으로 발효시키는 조리법이 표준처럼 자리잡았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조를 농사짓지 않으므로 쌀이나 강냉이밥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생선과 무, 고춧가루의 기본 재료로만 만드는 걸 가장 맛있는 식해로 친다.



한편 몇몇 평양냉면 전문점에서는 특히 겨울철 별미로 어북쟁반도 먹을 수 있다. 낮고 넓은 냄비에 저민 쇠고기 편육을 빙 둘러 담은 것을 기본으로, 메밀 국수를 더하고 국물을 자작하게 붓고

전골처럼 끓여 먹는다. '어북'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씩 다른데, '편안한 가운데 배부르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의 '어북[飮鑊]'이라는 설명이 있는 한편 암소의 어북살, 즉 배반이살을 주재료로 만든 요리라는 의미에서 어북쟁반으로 불린다는 주장도 있다.

한식을 논하면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북한의 김치는 어떤 특색을 지닐까? 아무래도 춥다 보니 양념을 많이 써 짜거나 맵지 않고 국물이 많아 한편 시원하면서도 발효로 인한 감칠맛 덕분에 알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싱거운듯 충분한 감칠맛으로 만족감을 주는 상태인 사투리 '슴슴하다'가 평양 냉면을 비롯한 북한 음식의 미덕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국물에 고기를 끓인 육수나 명태 대가리 끓은 물을 더해 감칠맛을 보강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아예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담그는 백김치도 있다. 평양이 고향인데, 국물을 넉넉하게 잡아 국수나 밥을 말아 먹기 좋도록 국물을 넉넉하게 잡아 담근다.



백김치처럼 북한에 좀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음식을 하나 더 꼽는다면 만두가 있다. 워낙 세계적인 음식이니 남한에서도 먹지만 한식에서 뿌리를 찾으면 아무래도 북한으로 향한다. 실제로 남한에서도 만두는 냉면처럼 '이북식'을 꼽는데, 다만 냉면 전문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아이주먹만큼 큰 만두를 북한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북한에서 널리 먹는 만두는 '편수'라고 하는데, 사각형의 피에 소를 얹고 피라미드형으로 싸서 모양을 잡은 작은 만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는 두부밥이 있다. 북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름처럼 두부 한 모를 얇게 6등분해서 대각선으로 칼질해 삼각형으로 썰고, 기름에 튀긴 뒤 가운데를 반 갈라 주머니를 만든다 (결국은 유부와 같은 원리다). 그리고 볶은 채소, 멸치, 고춧가루, 들기름, 맛소금 간을 한 밥을 채운다. 한편 설날 등 명절에는 후식으로 찐 감자나 단호박을 먹거나 식용소다, 설탕, 밀가루, 소금 등으로 손가락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름처럼 손가락 길이와 굵기의 반죽을 구워 설탕을 녹인 아이싱(icing)을 바른 과자이다. 🍡

정신적 강박을 미술로 승화시킨 거장의 세계, 아담하지만 시크한 미술관에 담기다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일본의 수도 도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주쿠(新宿) 지역을 찾게 됩니다. 신주쿠는 도시계획으로 세워진 도쿄의 부도심이자 번화가이지요. 지난해 10월, 신주쿠에 작지만 아름다운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 1929~)의 미술관입니다.

쿠사마야요이의 미술관은 신주쿠역에서 동쪽으로 두 정거장 떨어진 뱌텐초 107번지에 있습니다. 신주쿠 주택가에 세계적 작가의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거리는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쿠사마의 미술관은 개관한지 1년도 안됐지만 전세계 관람객이 모여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박 조각과 폴카도트(물방울 무늬) 페인팅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의 팬들이 세계 도처에 있기 때문이지요.

지하 1층, 지상 5층의 타워형 구조로 설계된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일본의 유명 건축그룹 쿠메 세케이(Kume Sekkei)가 디자인했습니다. 쿠메 세케이 그룹은 일본 근대건축의

개척자 곤쿠로 쿠메(1895-1965)가 1932년에 설립한 건축사무소로, 초기에는 내진설계가 뛰어난 목조건축으로 유명했고 이후 공공건축과 상업건물, 문화시설을 설계하며 종합건축사무소로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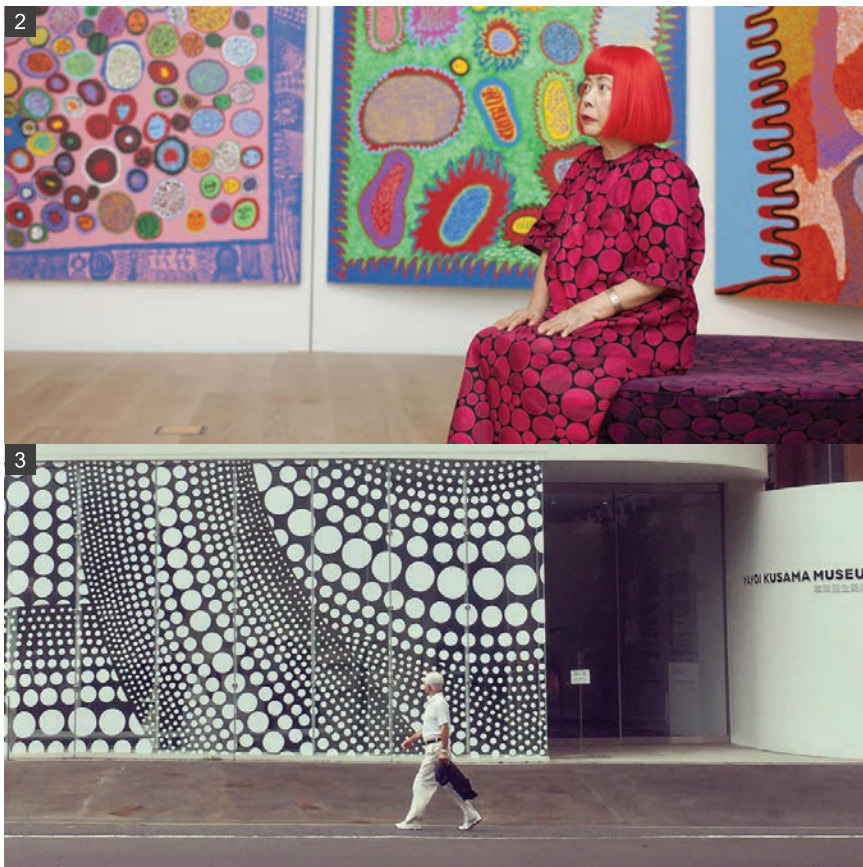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쿠메 세케이의 입장에선 규모가 작은 건축 프로젝트지만 새롭고 창의적인 건물이어서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쿠메 세케이 건축사무소는 미술관의 모서리를 직각이 아닌 곡선으로 처리하고, 층마다 안이 환히 보이도록 유리로 마감해 독특한 미감을 뽐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층 벽면 절반을 유리로 마감해 내부의 조명이 바깥을 등대처럼 빛을 비추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미술관을 찍으려는 건축학도들이 곳곳에서 모여든다는군요.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아담하지만 세련된 건축”이란 평을 받았으며, 일본의 한 건축평론가는 “일본 현대미술 거장의 광기 어린 작품과 간결하면서도

시크한 건축이 잘 대비된다”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을 통한 예약제로만 관람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면 어떻게



1 도쿄에 건립된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



2 자신의 회화 앞에서 포즈를 취한 쿠사마 야요이. 옷도 직접 디자인했다.
3 쿠사마 야요이의 반복적인 점과 패턴이 벽을 채운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 전경

티켓을 구할 수 있겠지'하고 찾았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미술관을 관람하려면 반드시 두 달 전에 티켓을 사야하는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팬이 많아 한 달치 티켓이 순식간에 동이 난다고 합니다. 미술관 측은 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군요. 미술관 측은 하루에 4회, 회당 30명씩만 입장시켜 혼잡을 막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실은 옥상과 4층의 '미러 룸'입니다. 4층의 공간설치작업 'Infinity Rooms'는 조를 짜서 2분씩 감상하게 됩니다. 'Infinity Rooms'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트레이드마크인 샛노란 호박조각들이 밀폐된 공간에 꽂 들어찬 가운데 사방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합니다. 끝없이 증식하는 호박들을 감상하기에는 2분이 너무 짧아, 다시 방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옥상 전시실도 근사합니다. 천정과 벽면이 뚫려 있어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큰 매력이죠. 옥상에는 황금색 바탕에 핑크빛 폴카도트가 그려진 대형 호박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관람객을 반깁니다. 인증샷 촬영 포인트로 제격이지요. 옥상 한편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도록과 자료를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2,3층은 메인 전시실로 쿠사마 야요이의 회화와 오브제를 기획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쿠사마 야요이는 일본 나가노의 부유한 중모상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분풀이를 했고, 쿠사마는 골방에 파묻혀 그림만 그렸지요. 그러던 중 온 사방이 붉은 점으로 뒤덮

이는 환각이 찾아왔고, 이후 그는 일평생 정신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광기의 작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을 등지고 쿠사마는 1957년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곤 1960년대 맨하탄에서 'Love in Festival'이라는 누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전위적이고 도발적인 활동을 거듭하였으며, 앤디 워홀 등 여러 미국 작가들과 어울리며 팝아트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심해진 그는 도쿄로 돌아왔고, 정신병원 앞에 스튜디오를 마련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환각과 강박, 극심한 고통을 예술로 치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1993년, 쿠사마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본관 대표작가로 선정되어 호박 조각물을 사용한 설치미술을 선보였습니다. 호박은 어린 시절부터 늘 접했던 것으로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지요. 그 후 일본 나오키마 섬에도 대형 호박조각을 설치해 주목 받았으며, 유리와 조명을 사용한 'Infinity Rooms' 작업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어두운 공간에 거울과 유리, 빛을 통해 끝없는 반사와 투영을 유도한 이 작업은 관람객에게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후 쿠사마는 명품 패션브랜드 루이비통과 협업을 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판타지를 선사하는 '미러 룸'을 전세계 미술관에 설치하며 쿠사마는 정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또한 뉴욕 휘트니미술관 개인전을 필두로, 런던의 테이트 모던, 도쿄 국립신미술관 등에서 대규모 순회전도 가졌지요. 올해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회고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 등 유명화랑에서도 그를 전속작가로 관리하면서 작품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쿠사마는 최근 10년간 작품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작가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내 주위 모든 것에 나의 의지를 불어넣고 싶다"는 작가의 내면과 예술혼을 살필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도쿄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작지만 신비로운 이 미술관을 탐방해보시길 권합니다. 

위원동정

◆ 황용석 위원, <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 세미나 개최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4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접점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손관승 위원, <me, 베를린에서 나를 만났다> 발간

손관승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iMBC 사장)은 4월 2일 독일 베를린의 도시재생 과정을 소개한 <me, 베를린에서 나를 만났다>를 발간했다. 손 위원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인 베를린이 예술의 도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삶의 원동력을 되찾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

◆ 이종세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향후 과제> 포럼 개최

이종세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은 3월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을 받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주정민 위원, 인터넷신문 '시민의 소리' 사내 교육 강의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4일 광주지역 인터넷신문인 '시민의소리'에서 '신문의 뉴스제작과 올바른 선거보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주 위원은 언론 산업의 지형과 올바른 선거보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거보도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피하고 신선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오상훈 위원, '제주관광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오상훈 중재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4월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열린 2018 제주관광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주관광포럼은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2012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5차에 걸쳐 개최됐다.

◆ 위원 사퇴

•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사퇴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사퇴일자
제주중재부	김건일	• 제주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2018.4.7.

위원회 뉴스

◆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3월 30일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인석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한 순간 실수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근속 직원 4명 및 유공직원 9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위원회는 4월 18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총무팀 이예찬, 교육팀 원용성).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는 향후 위원회 사회공헌활동 계획 및 사회공헌기금의 구성과 집행 등에 관한 심의·의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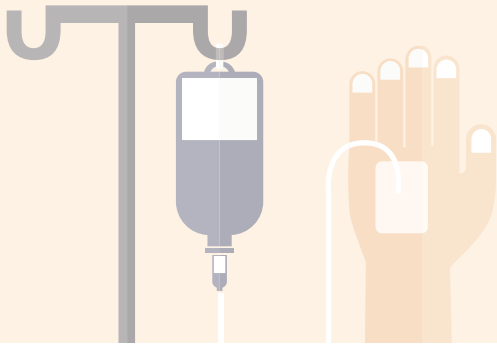
◆ 제3기 SNS 기자단 발대식



위원회는 4월 13일 <제3기 언론 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발된 11명의 SNS 기자단은 4월부터 6월까지 위원회 공감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 콘텐츠 작성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 2018년도 제1차 변호사 연수 실시

위원회 교육팀은 4월 20일 2018년도 제1차 변호사 연수를 실시했다. 현직 변호사들에게 조정제에 대한 실무와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변호사 연수에는 전국의 변호사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에는 양재규 변호사(대전사무소장)의 '언론 조정 절차 개관', 조흥준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의 '판례와 조문을 통해 살펴보는 조정 실무' 강의가 진행됐다.



Superformula to Fight Cancer

병원에 등장한 슈퍼히어로 캠페인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봤던 슈퍼히어로가 브라질의 한 병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까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암센터. 이곳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원터우먼과 슈퍼맨 등 슈퍼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슈퍼히어로를 만난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났는데요. 사실 암센터에 나타난 슈퍼히어로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향암 정맥주사를 넣을 수 있는 링거 케이스에 그려진 것입니다. 케이스를 받아본 아이들은 케이스에 그려진 히어로들을 보고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링거 케이스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테리어 역시 슈퍼히어로 로고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히어로 캐릭터들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악당들을 무찌른다는 내용의 만화책과 만화 영화를 암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친근한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캠페인은 'Superformula to fight cancer'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암센터와 영화제작사, 광고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캠페인 이후, 아이들의 병세가 놀랍도록 크게 호전되었고 지역 내 다른 암센터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치료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등장한 슈퍼히어로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힘든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